



Received: 2024/02/22
Revised: 2024/03/08
Accepted: 2024/03/23
Published: 2024/03/31

***Corresponding Author:**

Kyung Han Lim

Dept. of Military Strategy,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PO box number 88-4-1, 1 Jungwon-ro, Jinhae-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704, Republic of Korea
Tel: +82-55-907-5350
Fax: +82-55-969-5333
E-mail: klim@navy.ac.kr

미중 해군력 경쟁 시대 동아시아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의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East Asian Maritime Region in the Era of US-China Naval Power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임경한*

해군대령(진)/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Kyung Han Lim*

CAPT(Sel.), ROK Navy/Professor, Dept. of Military Strategy,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1. 서론

2022년 2월 미국은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스스로를 인도-태평양 국가(Indo-Pacific power)로 분명하게 선언했다.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연계한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하 '중 해군')의 급격한 전력 팽창을 견제하고 동맹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미 해군 주도의 해양전략에 맞춰 중국 견제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순위로 인식한다.

2024년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해군력 현시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미 해군은 인도-태평양 중 동아시아 해양(East Asian Seas)에서 단독으로, 또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연합으로 군사작전을 실시함으로써 해양의 자유롭고 열린 개방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중 해군력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과 타이완해협 통항 작전(Passage through Taiwan Strait)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만 5회의 FONOP과 9회의 타이완해협 통항 작전을 실시했다. 특히 초계기 P-8A이 타이완해협 상공을 5회 비행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자유로운 영공 활동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Abstract

본 연구는 미중 해군력 경쟁이 본격화하는 무대로서 동아시아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찰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주제는 중국 해군력 증강과 이에 대한 미 해군의 대응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동아시아 해양의 불안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해상교통로(SLOC)의 위협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안보적 의미를 확인한다. 또한 중 해군을 견제하려는 미 해군의 움직임과 미국 중심의 파트너십 구축 측면에서 한-미-일 간 해양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미중 해군력 경쟁이 가져올 동아시아 해양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대응에 대해 제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East Asian Seas as a stage where the US-China naval power competition intensifies. The topic of note in this article is the instability of the East Asian Seas, which can be inferred based on the increase in Chinese PLA naval power and the US Navy's response to it. In particular, we look at threats to SLOC(sea lines of communication) and confirm their security implications. It also examines the US Navy's moves to keep the Chinese Navy in check and the possibility of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in terms of establishing a US-centered partnership. In conclusion, author suggest strategic responses that the Korean Navy should consider in the unstable security situation in the East Asian Seas brought about by the U.S.-China naval power competition.

Keywords

동아시아 해양(East Asian Seas),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한미동맹(ROK-US Alliance),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4년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학술연구과제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음.

그러나 미 해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 해군의 전력 증강과 이에 비례한 해군력 운용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 중국은 해군력을 동원한 훈련 및 작전의 반경을 중국 본토 기준으로 원해로 확대하는 등 공세적인 움직임을 과감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3번째 항공모함인 푸젠(福建, Fujian)함을 진수하여 통상적인 해군함정의 운용 주기인 입무-대기-훈련-정비가 가능한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1번 항공모함 라오닝(遼寧, Liaoning)함과 2번 항공모함 산둥(山東, Shandong)함과 함께 동아시아 해양에서 계획적인 해양작전이 가능한 것이다. 2023년 7월에는 094형 진급 잠수함(SSBN)에 JL-3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배치를 완료하는 등 해양에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 해군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시간의 흐름이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는 듯하다.

이 글은 우선적으로 미중 해군력 경쟁이 본격화하는 무대로서 동아시아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찰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주제는 중 해군력 증강과 이에 대한 미 해군의 대응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동아시아 해양의 불안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의 위협에 대해서 살펴보면, 첨단과학기술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한층 더 주목받고 있는 해저케이블 안보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또한 중 해군을 견제하려는 미 해군의 움직임과 미국 중심의 파트너십 구축 측면에서 한·미·일 간 해양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미중 해군력 경쟁이 가져올 동아시아 해양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대응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2. 중 해군력 증강과 정보수집 활동 강화

2023년 10월 발표된 중 해군력 현대화(China naval modernization)에 관한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투함정 기준으로 중 해군은 이미 미 해군의 전력보다 많은 수의 주요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과 2030년 기준으로 미중 주요 해군 전력 수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정의 척수만으로 미중 간 해군력 경쟁의 우위를 재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양력의 핵심 근간이 되

는 주요 함정의 양적 비교는 운용 가능한 전력의 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많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Table 1. 미중 해군함정 척수 비교[1]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전략미사일잠수함	4	6	8
원자력추진 공격잠수함	7	10	13
재래식추진 잠수함	55	55	55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43	55	65
호위함, 초계함	102	120	135
총계	360	400	425
미국	296	286	290

이처럼 해군함정 플랫폼 측면에서 자신감을 가진 중 해군은 최근 들어 동아시아 해양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양 활동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중국은 Hainan함(LHD31)과 Guangxi함(LHD32) 등 자체 건조한 강습상륙함 등으로 구성된 원정강습단을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거나 서태평양으로 진입시키는 원양항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식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항해를 비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중 해군 단독 또는 러시아 해군과 연합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타이완 총통 선거 전부터 의도적으로 타이완해협 주변에 대한 항해 및 항공 정찰을 강화하는 등 동아시아 해양 내 영유권 분쟁해역 내해화를 위한 군사력 현시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해군력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의 내용보다는 훈련을 통한 중 해군의 실질적인 정보수집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해양을 배경으로 중 해군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동해역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첫 번째 예는 2022년 5월 중 해군 정보수집함이 호주 서부 연안에 근접하여 기동함으로써 해상 및 수중 해양환경에 대한 정보수집을 감행한 사례다. 호주 서부에는 Harold E. Holt 호주 해군기지가 있는데, 동 기지가 실질적으로 잠수함 통신 중계 임무를 포함하여 호주 해군 및 동맹의 주요 통신 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위협적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예는 2022년 8월 2일에 난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맞춰 중국이 타이완해협을 완전히 봉쇄한 사례이다. Fig. 1과 같이 중 해군이 타이완 인근 6개 해역을 훈련구역으로 설정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및 수상함과 잠수함 등을 동원하여 해상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타이완 남부 카오슝항 인근 해역에서 중 해군이 잠수함을 이용하여 수중 감시·정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타이완해협 근해는 동아시아 해양을 경유하는 주요 국가들의 해저케이블이 다수 매설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해역에 대한 중 해군의 수중 감시·정찰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유사시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미중은 물론 동아시아 해양 인접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를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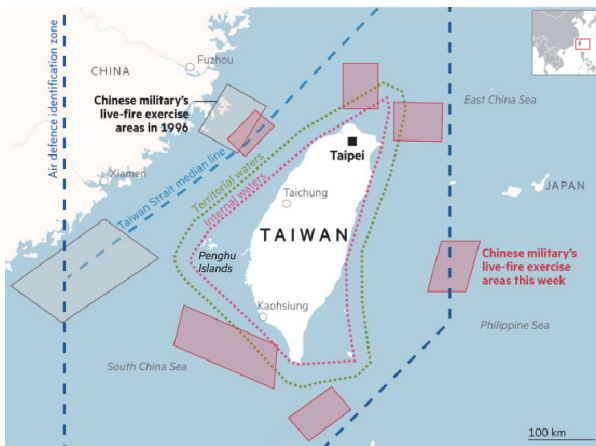


Fig. 1. 중국의 타이완해협 봉쇄작전[2]

3. 중 해군 전제를 위한 미 해군 동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위협은 중국의 도전이다. 국가안보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을 지원하는 미국의 해양전략은 해양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공간 등 각종 정보환경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통합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 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해양통제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 해군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전력 획득 및 운영, 그리고 해양작전 개념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미 해군에서는 전영역작전(all domain operations)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균형 잡힌 해군력을 갖추려 한다.

최근 미 해군은 전투 수행에 효과적인 유·무인함정 운용을 위하여 하이브리드형 해군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7월 미 해군은 해군전력계획(NAVPLAN 2022)을 발표했다. 중국과의 장기간에 걸친 경쟁을 강조하는 국가안보전략 및 해상에서의 우위를 실행하기 위한 미 해군성장관의 전략과 비전이 포함된 계획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2045년까지 유·무인을 구분하여 총 523척(유인함정 373척, 수상 및 수중 무인함정 150척)의 함정을 보유 및 운용하는 것이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29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한 미 해군의 장기적인 전력 증강 계획으로, Table 2는 이러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잘 보여준다.

Table 2. 미 해군 전력 증강 계획[3,4]

구분	Battle Force 2045 (2020년 발표)	NAVPLAN 2022 (2022년 발표)
항공모함	8-11	12
경항공모함	6	-
대형 전투함	80-90	96
중형 전투함	60-70	56
상륙함	50-60	32
전투 군수함/지원함 등	70-90	82
무인 수상함/무인 잠수함	140-240	150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12	12
공격 핵잠수함	70-80	66
총 척수	500+	523

무인수상함은 건조비가 약 2,000만 달러이며 하루 운용비는 1.5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수준이다. 수습 배가 넘게 소요되는 유인함정과 비교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경제적인 전력으로 평가된다. 이에 미 해군은 인도·태평양에서 작전하는 해군력 구성을 유인함정 위주에서 유인함정에 더해 무인함정을 대폭 증강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3년 9월 미 해군은 길이 58 m의 중형 무인수상함인 Ranger와 Mariner 등 2척을 7함대에 실전 배치했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유·무인 해군전력을 활용한 분산해양작전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즉, 주요 함정에 대한 위협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소규모의 산개된 아군 화력을 동시에 집중적으로 적에게 쏟아내는 작전을 준비 중이다.

또한 미 해군은 주로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 다자간 연합훈련을 주도하면서도 동아시아 역내 동맹국들과 양자 또는 3자간 연합훈련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에서 자체적인 훈련 및 호주, 일본, 한국 등 동맹들과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23년 미 해군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합훈련에 한일 해군이 거의 모두 참가했다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중국 견제를 실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Table 3. 미 해군 주관 연합훈련 현황(2023년)

훈련	주관	기간 및 장소	참가국가	훈련 내용
Cobra Gold	미인도태평양사, 태국합동참모본부	2. 28 - 3. 10 태국 근해	미국, 태국, 싱가포르,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상륙작전
Pacific Vanguard	미7함대사	7. 1 - 12 필리핀해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자유공방전, 해상군수
Talisman Saber	미인도태평양사, 호주합동작전사	7. 12 - 8. 4. 호주 근해	미국, 호주, 일본, 영국, 인도, 뉴질랜드, 한국 등	강제진압 작전, 대함·대잠 작전

4. 동아시아 해양안보 위협과 해상·해저 교통로의 중요성 부각

동아시아 해양에서는 국가 간 해양영토 분쟁과 해양경계 획정 등 전통적인(traditional) 해양안보 도전요인과 함께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해양환경 보전 등 비전통적인(non-traditional) 측면의 해양안보 이슈가 그 어느 곳보다도 활발하게 공존한다.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관련한 동아시아 해양의 주요 안보 현안으로는 크게 볼 때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남중국해·동중국해의 해양영토 분쟁과 해양경계 획정 등 영유권 문제, 타이완해협 위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및 확산 위협 등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파생된 유럽과 중동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은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물론

이며 홍해와 인도양 전반에 걸쳐 항행의 위협이 고조되는 근래에 유례없는 모습이다. 이제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은 미중이 경쟁하는 인도-태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해양에 대한 주목도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다. 동아시아 해양의 교통로가 위협받을 경우 공급망 확보에 관한 문제가 지역적 위기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이슈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비전통적인 해양안보 위협 중 SLOC의 안정성 확보는 전쟁이든 평시든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다. SLOC은 국가 간 교역을 이어주는 핵심이기 때문에 SLOC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시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SLOC의 안보 문제는 에너지 및 식량 안보와 연계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 또는 무장단체 간 무력을 동반한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키는 잠재적인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소한 움직임이 국제적인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SLOC 보호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핵심적인 안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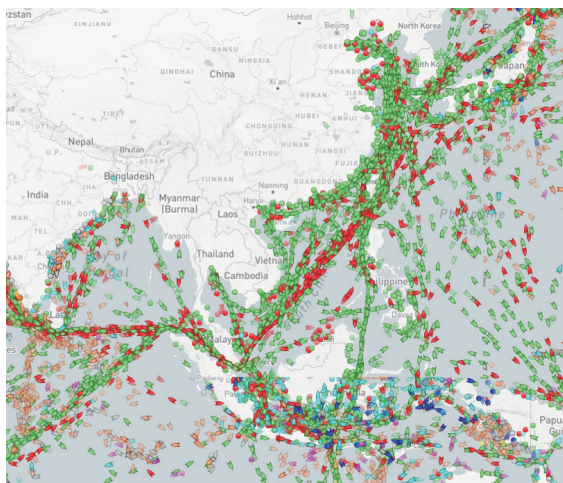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전장이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육·해·공을 넘어 사이버·우주·전자전 스펙트럼까지 포괄하는 양상으로 확대 및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최근 벌어진 전쟁을 통해 이제는 수중 영역까지 전장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통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과 처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저에 설치된 망은 에너지 운송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통신, IT 서비스, 디지털 상품 등 데이터를 운반하는 해저케이블을 포함한다. 실제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전체 데이터 트래픽 중에서 해저케이블을 통한 데이터 처리 용량이 90%를 넘어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들어 데이터 전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저케이블을 통한 데이터망 안보를 포함한 이른바 해저교통로(under-SLOC)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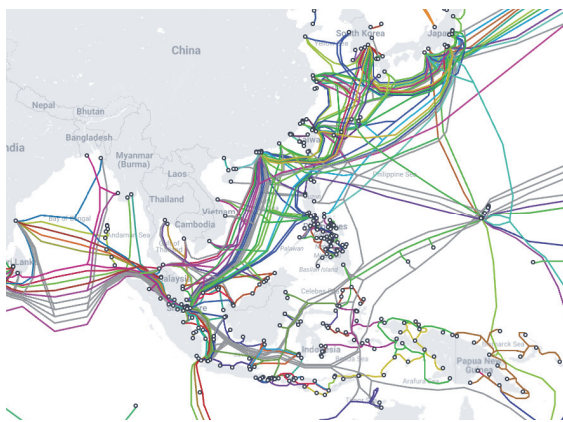
전쟁 초기 해저케이블을 파괴하는 것은 비단 사이버 전쟁의 승기를 잡는 것에 더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적 방식의 전쟁을 수행하려는 적의 지휘통신

체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아시아 해양을 경유하는 해상(저)교통로의 대부분이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타이완 등에 인접해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해양에서 해상(저)교통로의 안정성 확보는 역내 주변국 모두가 함께 인식하는 공통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특징이 있다.

Fig. 2는 동아시아의 해상(저)교통로 현황을 보여주는데, 인도-태평양 중에서도 동아시아 해양을 경유하는 교통로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SLOC과 U-SLOC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먼저 평시의 국가 번영과 유사시 또는 전시에 지속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과업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해양과 인접한 많은 국가들이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a) SLOC



(b) U-SLOC

Fig. 2. 동아시아 해양의 SLOC/U-SLOC 현황[5,6]

5. 결론

2024년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홍해 사태 등 글로벌 안보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하여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이는 글로벌 안보환경을 더욱 비관적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일본, 북한이 각각 미국과 중국 세력권에 밀착하면서 이른바 신냉전(new cold war)의 구도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을 무대로 미중 간 다방면에 걸쳐 경쟁적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신냉전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중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역내 핵심 국가들이 해양력을 활용한 강 대 강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일본, 한국-중국, 중국-일본 간 경쟁이 시나브로 진행 중이며, 곧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해협 문제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등 전통적인 해양분쟁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해군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공공연하게 표출되면서 한반도의 해양안보 환경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제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 해군 주도의 해양전략에 발맞춰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가 가능한 전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동맹국과 함께 군사·비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해군력을 활용하여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 해군 또한 미 해군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더해 양국 해군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협력의 범위에는 전력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에서부터 전력 확보 이후 운용에 관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협의 등 전방위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유무인 복합작전개념에 따라 해양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단계에서부터 한미 해군 간 시스템 일체화나 운용

개념 개발 등 해양무인체계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해양을 배경으로 한·미·일 간 해양 안보 협력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선언한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 관계(forward-looking relationship)를 우리 방식대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한미동맹 공고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간 효과적인 해양작전의 상호운용성 증대를 위한 연합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고, 해양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단기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식별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한미 간 해양협의체의 활동 범위에 함정의 건조 및 정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범주가 평시 함정의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등 하드웨어 측면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침 2024년 2월 한미 해군참모총장이 만나서 이러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어서 미 해군성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불안정한 동아시아

해양 안보 상황을 마주한 현 시점에서 한미 해군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기회다.

참고문헌

- [1] Ronald O'Rourke (2023),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October 19.
- [2] Kathrin Hille (2022), "Nancy Pelosi Vows US Support for Taiwan as Officials Warn of China Military Blockade," Financial Times, August 4.
- [3] U.S. Navy (2022), Chief of Naval Operations Navigation Plan 2022(Washington D.C.: U.S. Navy).
- [4] U.S. DoD (2022),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 Annual Report To Congress.
- [5] Marine Traffic (2024), <http://marinetraffic.com/en/ais/home/centerx:-140.6/centery:43.1/zoom:2>.
- [6] Submarine Cable Map (2024), <https://www.submarinemap.com/>
- [7] America's Navy (2024), "CNO Hosts Republic of Korea Chief of Naval Operations for Counterpart Visit," February 2.
- [8] Nick Wadhams (2024), "U.S. Navy Secretary Looks to Asia to Revive Shipbuilding at Home," February 26.
- [9]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4), 『2024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